

계육산업뉴스

Broiler industry



발행인 : 김홍국 편집 : 김한웅
(우 463-05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72-5(수의과학회관 402호)
☎ (0342)707-5722~4 FAX (0342)707-5725
기획편집 : 변지미디어 ☎ (02)2263-3598

제6권 제3호 통권57호



- 계육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

닭고기 수출대책협의회에 대한 기대

계육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중의 하나인 닭고기 수출을 위한 「닭고기 수출 대책협의회」가 지난 3일 축산기술연구소 대전지소에서 출범했다.

유관기관, 단체, 업계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밝기인 모임을 가진 이날 회의는 국내 육계산업의 미래를 다시 가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장이라는 점에서 참가인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 냈다.

꾸준히 수출시장 개척을 해나가고 있는 삼계탕, 계정육 등은 제외하고 몇 차례에 걸쳐 시험수출이 이루어져 닭고기 수출이 전무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익을 창출해 나가는 진정한 의미의 닭고기 수출은 아직까지는 요원한 것으로 인식 되어왔던 것이 현 업계의 실정이었다.

닭고기 수출은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도 불합리한 제도, 사육기술의 부족, 가공기술의 한계, 주변여건의 미성숙 등으로 수출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느껴왔던 것이다.

그러나 국내 닭고기 소비시장이 완전 개방 되었고 올해만 해도 2월말 현재 1만 1천 755톤의 닭고기가 수입돼 20%에 가까운 시장 잠식을 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닭고기 수출시장 개척에 주저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 관련인들의 절박한 심정이었다.

닭고기 수출의 어려움을 빌미로 체념하고 있다가는 앞으로 다가올 어려움이 깊어 생각해보지 않아도 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탄생하게된 「닭고기 수출대책협의회」의 결성은 오랜 가뭄으로 갈증을 느껴온 육계산업에 단비와 같은 존재로 느껴질 만하다.

다행히도 농림부 산하기관에 수출전담 연구팀의 협의회 구성돼 닭고기 수출을 위한 다각적인 프로그램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계육업계가 닭고기 수출을 추진해오면서 한계에 부딪혔던 문제점들이 해결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또한 연구진들도 국내 육계산업을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것이 결실을 맺을 수도 있다는 기대에 활기를 되찾고 있는 것도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닭고기 수출을 위해 학계·연구계는 물론 실전경험이 풍부한 업계가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일부 수출업체의 경우 이미 수출용 육계생산에 착수했으며 늦어도 10월 이전에 닭고기 수출을 시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고 이번 프로젝트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하고 있기도 하다.

닭고기 수출대책협의회의 구성은 「제도개선 작업반」 「생산기술개발작업반」 「수출전략작업반」 골격으로 이 분야 전문 작업반원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여기에는 각 팀별 구성원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육계사육농가, 수출업체 지도부의 지원 등도 중요한 관건이 된다. 철저한 역할분담을 통해 최선의 결론을 도출해 낼 때 가장 합리적인 수출대책방안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수출은 각각의 작업반이 가장 이상적인 방안을 찾아 총체적으로 결론이 어우러질 때 가장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다.

이중 어느 하나라도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무력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닭고기 수출 계획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정부당국도 형식적인 수출협의회 결성에 머무르지 않도록 강한 의지를 갖고 파격적인 지원방안을 찾아나가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출의 걸림돌로 돼 왔던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수출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내 육계산업이 개방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방안이 수출이라는 결론에 도달된 만큼 이번 닭고기 수출대책협의회의 발족이 국내 육계산업의 활로를 제시하는 등불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